

#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과 관련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무리 좋은 대학, 자신이 입학하기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 해도 학자금을 마련할 수 없으면 그림 속의 떡일 뿐이다. 그런데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다. 그 결과 당연한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가장 많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몇가지를 '미국 대학 학자금 전문 그룹: 베이 스펙트럼 컨설팅' (bayspectrum.com) 이 소개했다.



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받을 수 있다.

### ■ 학자금 보조를 신청하면 입학에 불리하다

대학 입학과 학자금 보조는 완전히 별개의 일이며 학자금 보조를 신청하였다

고 하여 진학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각 대학은 정부, 기업, 졸업생들을 포함한 기부자로부터 펀드를 받아서 매년 학자금 보조금을 책정하며 그 예산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정해진 금액만큼은 사용해야 하므로 학교 정책을 Need-blind라고 공표한 학교에서는 공표된 정책에 반하여 자금을 집행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물론 Need-blind가 아닌 학교에서는 학자금 보조의 신청이 입학 사정에서 고려를 하고 있어 이러한 학교들은 입학원서 신청서에 이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Need-blind인 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학자금 보조 신청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

### ■ 학자금 보조 신청은 대학 입학이 정해진 후에 한다

학자금 보조의 신청 시기는 학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학 입학 신청 시기와 비슷하다. 즉, 입학원서를 제출할 때 해당 대학에 함께 신청하거나 곧 이어 신청을 해야 한다. 합격 통지를 받은 후에 합격된 그 대학에 학자금 보조 신청을 하는 줄로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대부분 학교가 합격 통지를 보낼 때 또는 곧바로 그 학교의 학비와 학자금 보조 내역을 함께 통보하고 있다. 따라서 합격 통지를 받은 후에 신청하는 것은 이미 기회를 놓친 것이다.

사진=shutterstock

### ■ 학자금 보조는 MERIT(재능이나 성적)에 근거한다

이러한 소문 때문에 자녀가 공부를 잘하지 못 한다고 학자금 보조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 학자금보조는 Need-base(재정문제)가 전체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아이비리그를 포함하여 유수의 최상위 사립대학들은 Merit scholarship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단 입학이 되면 입학 성적에 관계없이 가정 형편에 의해서만 학자금 보조를 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학교 랭킹이 조금 낮은 사립대학과 공립대학에서는 학교의 랭킹과 질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Need-based Scholarship과 병행하여 다양한 Merit Scholarship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 ■ 수입이 많은 가정은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없다

대학 학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웬만한 수입의 가정에서 이를 충당하기란 쉽지가 않다. 사립 대학 1년 Tuition을 포함한 평균 비용은 6만불이 넘는다. 그래서 소득이 20만불 이하인 가정은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 좋은 조건으로 학생에게 제공하는 분

# 열정 따라 전공 선택해야 지속 가능

대학 진학 시 편견이나 부모의 권유에 못이겨 대학 전공을 정하는 학생들이 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미 전국의 대학들이 제공하는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1,500여 개가 넘는다. 그런데도 의사나 법조인, 과학자, 엔지니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고소득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전공만 관심을 두는 학생, 학부모가 많다. 이처럼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무시하고 선택한 전공은 지속 가능성이 낮다.



교육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마스터즈 (ADMISSION MASTERS)' (blog.naver.com/amseoulkorea)의 Richard Vincent Kim 컨설턴트에 따르면 전공을 정하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초기에 자주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 80%의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최소 한번 전공을 바꾸는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적인 학생들은 졸업 전에 세 번 전공을 변경한다는 놀라운 수치도 있다. 심지어 아이비리그 프린스턴 대학조차도 내부 연구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70%가 대학 생활의 어느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전공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대입 전에 전공을 정했던 대입 후에 전공을 정했던 결국은 어느 시기에 전공을 변경할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것이다.

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너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범하는 실수가 있다. 무려 3분의 2에 달하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가기 전에 자신의 관심과 동떨어진 전공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엉뚱한 선택을 하는 큰 이유는 부모가 주는 엄청난 압력 때문이다. 부모들은 돈을 많이 버는 분야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야를 선택하라고 자녀를 다그친다. 관심과 열정보다 미래의 연봉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특정한 직업과 대학원으로 100% 진로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분야를 준비할 수 있는 전공은 보통 한 가지 이상이다. 예를 들면 의대 진학을 원하는 수많은 학생은 학부에서 생물학을 전공해야 한다고 믿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실제로 의대 등록생 중 50%만 생물학을 전공했다. 다른 50%는 다른 전공을 갖고 있었다. 심지어 인문학 전공자들은 의대 입학시험인 MCAT에서 생물학 전공자들의 점수를 상회했다. 미국변호사협회(ABA)는 법대 진학용 추천 전공은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클래식 철학 수학 전공자의 LSAT(법대입학시험) 평균 점수가 학부에서 법학을 공부한 학생들보다 높기 때문이다.

사진=shutterstock

수학과 과학 분야는 학생들의 이탈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전공들이다. 이들 학부의 신입생 중 상당수는 12학기 성적을 받아본 뒤 성적이 자신들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면 그 전공을 포기한다. 이런 학생들은 주로 고등학교 시기에 가장 혹독한 수업을 들으면서 대학 수준의 STEM 수업을 해낼 수 있을지 가능해보지 않은 경우가 많다. STEM을 전공하고 싶다면 일반 교과과정보다 어려운 수학, 과학, 컴퓨터학 수업을 택해 자신의 능력을 측정해 봐야 한다. 대학 1학년 수업이 고교 12학년 때 경험한 수준과 비슷해야 대학 수업

# 밝고 건강한 신문 **타운뉴스**® 를 스마트폰과 컴퓨터로도 즐겨보세요!!

생활, 법률, 건강 등의 다양한 칼럼, 여행, 요리, 부동산, 사진, 영화, 사고팔고, 구인구직 매매임대 등의 다양한 생활정보와 한인사회 소식, 지면보기(pdf신문보기)까지

〈타운뉴스 QR코드〉



townnewsusa.com

### 타운뉴스 홈페이지 접속 방법

1. 스마트폰 카메라로 왼쪽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타운뉴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주소창에 왼쪽의 타운뉴스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온라인 신문 쉽고, 빠르게 타운뉴스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온라인 홈페이지: townnewsusa.com